

인천일보

홈 > 경제 > 경기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, 20일 'New-KIA 희망 봉사단'과 함께 화성호 환경정화활동

최남춘 | 승인 2022.04.20

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은 20일 화성방조제·화성호 일대(화성시 우정읍)에서 'New-KIA 희망봉사단' 30여명과 함께 '내 고향 물살리기' 환경정화활동을 했다고 밝혔다.

이들은 화성방조제와 화성호 일대에 불법투기된 쓰레기·폐기물 등을 수거하고, 화성호 내 불법 낚시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활동도 했다. ESG경영 확산을 위해 인근 농민을 대상으로 ▲가축분뇨 수로에 배출하지 않기 ▲미숙퇴비 사용하지 않기 ▲폐수 무단 배출하지 않기 등 수질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.

강원대 화안사업단장은 “이번 내 고향 물 살리기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보전과 개선에 기여하고, 보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/최남춘 기자 baikal@incheonilbo.com

저작권자 ©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최남준 baikal@incheonilboo.com

최남준

[다른기사 보기](#)